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신뢰성

김도관
원광대학교

The Analysis of Big-Data on Virtual Currency

Do-Goan Kim
Wonkwang University
E-mail : kimdg@wku.ac.kr

요 약

가상화폐 거래는 개인들의 또 다른 재테크 수단이기도 하지만, 많은 위험 요소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신뢰성을 변수로 하여 투자의지에 대한 관계를 실증적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ABSTRACT

While The transaction on virtual currency is another finacial tech for individuals, it includes a lot of risk. In this point, this research is to perform empirical research on reliability of virtual currency transaction.

키워드
가상화폐, 신뢰성, TAM

I. 서 론

지난 1월 정부가 가상화폐와 관련된 입장을 발표하면서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다. 블록체인은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일종의 장부다. 대부분의 가상화폐는 각각의 블록체인을 갖고 있으며 가상화폐 기술의 핵심이기도 하다. 신용이 필요한 온라인 거래에서 해킹을 막기 위한 기술로 사용된다.

승인된 블록만이 기존 블록체인에 연결되면서 송금이 이루어지고 제3자가 거래를 보증하지 않고도 거래 당사자끼리 가치를 교환할 수 있는 것이 블록체인의 구성이다. 본래 비트코인 거래를 위한 보안기술로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개발자의 논문에서 처음 등장한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2009년 비트코인을 만들어 공개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일반인들의 또 다른 재테크 수단 또는 일확천금의 기회로 활용될 정도로 급속도로 가상화폐 시장은 커져가고 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열기는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정부 규제로 인하여 1월 2400만 원 이상의 거래에서 2월 600만 원대까지 하락하였으며, 현재 900-100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최근 국내 가장 큰 가상화폐 거래소j가 사기혐의로 압수수색을 받는 바람에 다시금 가상화폐 시장은 요동을 치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회를 저가매수의 기회로 여기는 개인투자자도 적지 않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주 투자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무늬만 가상화폐주도 나타나고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가상화폐 시장의 특성 상 투자의도는 신뢰성의 측면에서 실증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보시스템 연구 분야에서 기술 수용에 대한 많은 연구들의 이론적 기반으로 사용되었던 TAM, 합리적 행동이론(TRA),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 관련 선행 연구들을 중심으로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출하고 이용이 이용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II. 본 론

이론적 배경으로 합리적 행동이론은 사회심리

학 분야에서 Fishbein(1967)에 의해 처음 개발된 이후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검증되었으며, 인간의 행위를 예측하고 이해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어왔다. 개인의 특정 행위 수행 여부는 행위의도에 의해 결정되며, 행위위도는 개인의 해당 행위에 대한 태도와 이와 관련된 주관적 규범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에 따라서 또는 해당 행위리 종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였다.

합리적 행동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술수용모델은 정보시스템 사용자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일을간명하게 설명하는 유용한 모형이다. 기본적으로 개인 의 신념이 태도에 영향을 주고, 태도는 의도와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TAM 모형에서의 신념, 태도, 의도가 상호작용하여 행위에 영향을 준다는 합리적 행위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Davis 등이 TAM 모형을 개발한 근본적 배경은 새로운 기술 또는 혁신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행위이론에 영향을 주는 사전적인 신념변수를 개발하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 두 가지 신념 변수는 바로 지각된 사용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이다. 지각된 사용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은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요구되는 노력에서 자유로운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되어지는데, 많은 선행 연구를 통해서 의도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고, 지각된 유용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는 특정한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업무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 지각딘 유용성 또한 많은 연구를 통해 사용자의 수용, 기술 채택, 사용 행위에 강력한 결정요인임이 이미 입증되었다. 기술수용모델에서 행위 의도는 태도에 의해 결정되면 실제 사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즉각적인 결정 요인으로 특정한 행위를 수행하려는 개인적 차원의 의도에 대한 강도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기술수용에 있어서 기술수용모형은 폭넓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조직적 수준에서의 혁신수용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기술수용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추가 요인들을 결합한 확장형 연구모형들이 등장하여 왔다.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 행위이론과 기술수용 모형에서 사용되는 변수를 결합하여 가상화폐 투자에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지각된 기회, 기각된 이용용이성, 지각된 신뢰, 지각된 위험, 주관적 규범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연구모형과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가상화폐 거래의 지각된 기회는 가상화폐 이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가상화폐 거래의 지각된 이용 용이성은 가상화폐 이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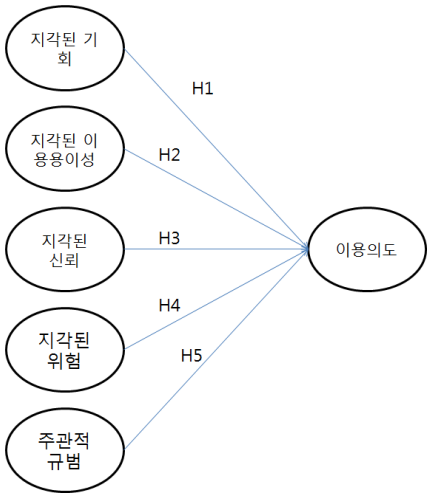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가설 3. 가상화폐 거래의 지각된 신뢰는 가상화폐 이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가상화폐 거래의 지각된 위험은 가상화폐 이용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가상화폐 거래의 주관적 규범은 가상화폐 이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I. 연구 결과

다섯 가지의 독립변수에 대한 이용의도의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은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각된 이용용이성을 제외한 지각된 기회, 지각된 신뢰, 지각된 위험, 주관적 규범에 이용의도에 통계적인 유의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가설 채택.

가설	채택 여부
가설 1	채택
가설 2	기각
가설 3	채택
가설 4	채택
가설 5	채택

참고문헌

[1] 유일, 소순후(2004), 인터넷 뱅킹 시스템 이용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산업경제연구, 17권 6호.

[2] 김도관 외 (2016), 교수자의 스마트학습 수용: TAM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 30, No. 6.